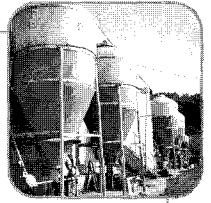


국내 양돈계열화 사업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



양돈사랑 참여농가 충남 태안 의명농장

▲ 의명농장 돈사 앞에서 오염남 양돈사랑 대표이사(좌)와 박광욱 의명농장 대표(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취재 : 안 혜 성

참여농가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의 참여농가인 의명농장(대표 박광욱)을 찾았다.

충청남도의 최서북단에 위치해 있고 전국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이 있는 태안에 위치한 의명농장은 충남 태안군에서도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된 안면읍에 자리잡고 있다. 의명농장 박광욱 사장은 지난 2001년 말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에 자금 출자를 통해 참여한 지 2년 정도되었다.

참여 후 농장 개조, 모돈 증식

의명농장은 2001년 이전에는 모돈 120두 규모의 일관사육을 했었으며 임신사, 분만사, 자돈사, 비육사 4개 동이 있었다.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한 이후, 자돈사, 비육사를 개조해 임신사와 분만사로 변경했다. 그리고 모돈을 320두 규모로 늘려서 운영하고 있다.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농가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각각의 농가에서 21일령에 이유한 자돈을 동일 자돈농장으로 전입시키기 때문에 질병이나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번식전문경영 전환후 장점

■ 전문적인 농장 운영 가능

박 사장은 양돈사랑에 참여한 이후, 가장 큰 장점은 번식 전문 경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일 관 사육할 때에는 임신, 분만, 이유, 비육 등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하는 어려움이 있었

는데 번식 전문경영으로 전환한 후에는 임신, 분만, 이유에 만 집중적으로 정성을 쏟을 수 있어 산자수 및 이유 두수가 늘어났다고 박 사장은 말한다. 또한 일손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 3주간 관리로 여유 로운 농장 운영

양돈사랑에 참여하고 난 뒤에 또하나 달라진 점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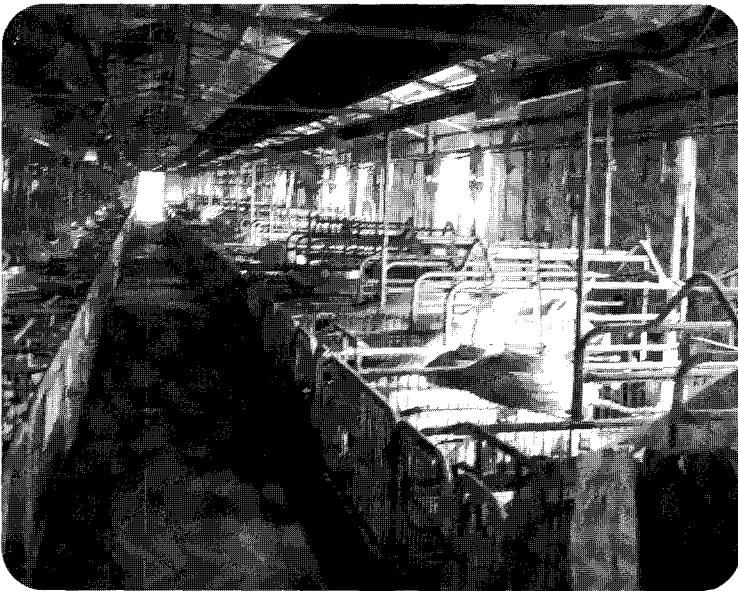
다면 3주간 관리로 여유 시간이 생겼다는 것이다.

3주간 관리는 모돈을 그룹별로 나누어 3주에 한번 교배, 분만, 이유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배, 분만, 이유가 있는 날을 전후해서는 한꺼번에 일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나 한번에 일을 마침으로 해서 나머지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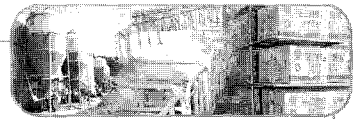
그러나 이같은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교배, 분만, 이유에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말처럼 한꺼번에 일을 몰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여유롭게 보낸다는 것이 어느 농가나 가능한 일은 아니다.

■ 질병관리 용이

3주간 관리를 통해 모돈을 그룹별로 나누어 분만을 시키기 때문에 분만사의 올인 아웃이 가능하다.



▲ 분만사 올인아웃 시행으로 돈사안이 깨끗하다.



이유 후 분만사를 수세, 소독하고 12일 정도 분만돈이 입식되기 때문에 질병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이는 생산성 향상 및 청정돈을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된다.

■ 분뇨처리 분산

번식 전문경영으로 교배·분만·이유 후, 자돈을 외부로 전출시킴으로써 양돈농가가 경영상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뇨처리이다.

육성과 비육 단계를 자돈농장과 위탁농장에서 키우기 때문에 양돈사랑에 참여하는 농가는 이유 단계까지 발생하는 분뇨만을 처리하면 되는 장점



▲ 이유후 5kg이 안된 돼지를 사육하는 인큐베이터

이 있다. 한마디로 분뇨위 처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박사장은 120두를 일관사육

할 때 발생하던 분뇨 양과 현재 320두의 모돈으로 번식 전문경영을 해 오면서 이유까지 발생하는 분뇨 발생량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 농장 이익

이렇게 농장 일도 몰아서 함으로써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분뇨처리도 용이하다면 과연 농장의 이익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은 출자를 통한 참여 농가의 PSY에 의한 이익배당, 즉, 이유 두수 및 체중에 의해 자돈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장의 이익은 '농장에



▲ 의명농장은 가축분뇨를 퇴비화로 처리하고 있다.

서 얼마의 자돈을 출하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이유로 참여농가들은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PSY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박 사장은 양돈사랑에 참여하기 전, 후와 비교했을 때 소득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 참여농가의 신뢰감이 중요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농가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각각의 농가에서 21일령에 이 유한 자돈을 동일 자돈농장으로 전입시키기 때문에 질병이나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만약 참여농가간의 신뢰가 없다면, “타 농장 환경이 안 좋아 질병이 걸린 자돈이 내 농장 자돈과 군사되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로 인해 내가 정성들여 출하한 자돈까지 피해를 입혀 출하두수가 감소되어 이익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것이다.

박 사장은 참여농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을 믿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참여농가와 법인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돈사랑의 보완점

■ 단순히 위탁사업을 통해 편하게 키우는 사업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유통, 사료, 종돈 사업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향후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의 미래에 대해 박 사장은

단순히 위탁사업을 통해 참여농가가 편하게 키우는 사업에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양돈사랑이 계열화 사업을 하는데 가장 시급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 유통과 브랜드 창출이라고 말한다.

법인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돼지고기 유통과 브랜드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사료, 종돈 사업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박 사장은 말한다.

또한 앞으로 세계화 시대에 국내 양돈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규모화, 전문화라고 강조하며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의 참여농가를 늘려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충남 흥성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양돈사랑과 같은 시스템의 사업이 정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양돈**

본지 캠페인

**돼지콜레라 박멸없이
양돈산업 미래없다**